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1. 2017년 글로벌 포워딩 Top 25, 디지털화 및 전자 상거래가 물류시장 변혁 선두 역할 지속

이슈페이퍼

1. NAFTA 재협상이 공급사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물류정책·산업동향

1. Uber Freight, 운전자 중심의 화물운송 중개 플랫폼 소개
2. 미국과 멕시코, 합동 화물검사 파일럿 프로그램 확대
3. 카자흐스탄, 이란과 교통·물류 분야 협력 다각화

해외현지리포트

1. 중국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한 아마존의 노력

명사 스피치

“...As global businesses are growing rapidly while supply chains are becoming more complex, it is crucial for our customers to detect future obstacles along the supply chain and take early actions to mitigate business risks”

DHL Head of Customer Solutions & Innovation Tobias Larsson
(2017. 9. 21. / DHL Press Releas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2017년 글로벌 포워딩 Top 25, 디지털화 및 전자 상거래가 물류시장 변혁 선두 역할 지속

2017 글로벌 포워딩 Top 25

A&A 순위	기업명	총수익 2014 (백만 달러)	해운 화물량 (TEU)	항공 화물량 (톤)
1	DHL Supply Chain & Global Forwarding	26,105	3,059,000	2,081,000
2	Kuehne + Nagel	20,294	4,053,000	1,304,000
3	DB Schenker	16,746	2,006,000	1,179,000
4	DSV	10,073	1,305,594	574,644
5	Sinotrans	7,046	2,950,800	532,400
6	Panalpina	5,276	1,488,500	921,400
7	Nippon Express	16,976	550,000	705,478
8	Expeditors	6,098	1,044,116	875,914
9	UPS Supply Chain Solutions	6,793	600,000	935,300
10	CEVA Logistics	6,646	681,600	421,800
10	GEODIS	6,830	690,000	330,000
11	Bolloré Logistics	4,670	856,000	569,000
12	Hellmann Worldwide Logistics	3,443	902,260	576,225
13	Kintetsu World Express	4,373	556,640	495,947
14	Yusen Logistics	4,169	633,056	332,389
14	Kerry Logistics	3,097	1,055,600	282,200
15	DACHSER	6,320	481,400**	272,100
16	C.H. Robinson	13,144	485,000	115,000
17	Agility	3,576	513,500	372,700
18	Hitachi Transport System	6,273	430,000	230,000
19	Toll Group	5,822	542,000	114,000
20	Damco	2,500	659,000	190,000
21	XPO Logistics	8,638	131,500	72,300
22	Logwin	1,095	600,000	140,000
23	NNR Global Logistics	1,676	146,278	286,897

자료 : logisticsmgmt.com (검색일 2017.09.21.)

주 : 2016년 물류 총수익/회전율 처리 화물량 기준.

- 올해 글로벌 포워딩 시장은 전년 대비 2.7% 성장한 반면, 운송능력 과잉문제와 평균 유가 하락, 항공 운송 및 해운 요율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음



- 이에 포워딩 업체들은 부가가치 창출 서비스를 강화해 수익 증대와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
- 전반적으로 항공과 해상운송시장의 매출은 증가했지만, 주요 국가 화물시장에서는 일정한 변화가 나타남
 - 중국은 항공화물시장에서 강세를 보인 반면, 해상화물시장이 저조했으며, 미국은 동기 대비 항공화물의 성장이 둔화하고 해운시장이 원활한 성장을 보임
- 포워딩 시장은 세계교역량이 가속화됨에 따라 내년 4.1%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함
- Logistics Trends & Insights가 실시한 설문 내용이 담긴 Ti 보고서 “진화하는 화물운송 시장 2017(The Evolving Freight Forwarding Market 2017)”에 따르면 물류시장에서 디지털화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밝힘
 - 캐시 모로우 로베르손 Ti 회장은 “물류 시장에 아마존, 알리바바와 함께 많은 신형 기술기반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기술과 함께 포워딩 기업들이 새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함
 - 현재 전자상거래는 운송 프로세스에 자동화를 더한 방식으로 운송시장의 트렌드를 바꾸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더욱더 이용하기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함

■ 참고자료 : logisticsmgmt.com, 2017.8.29.

공영덕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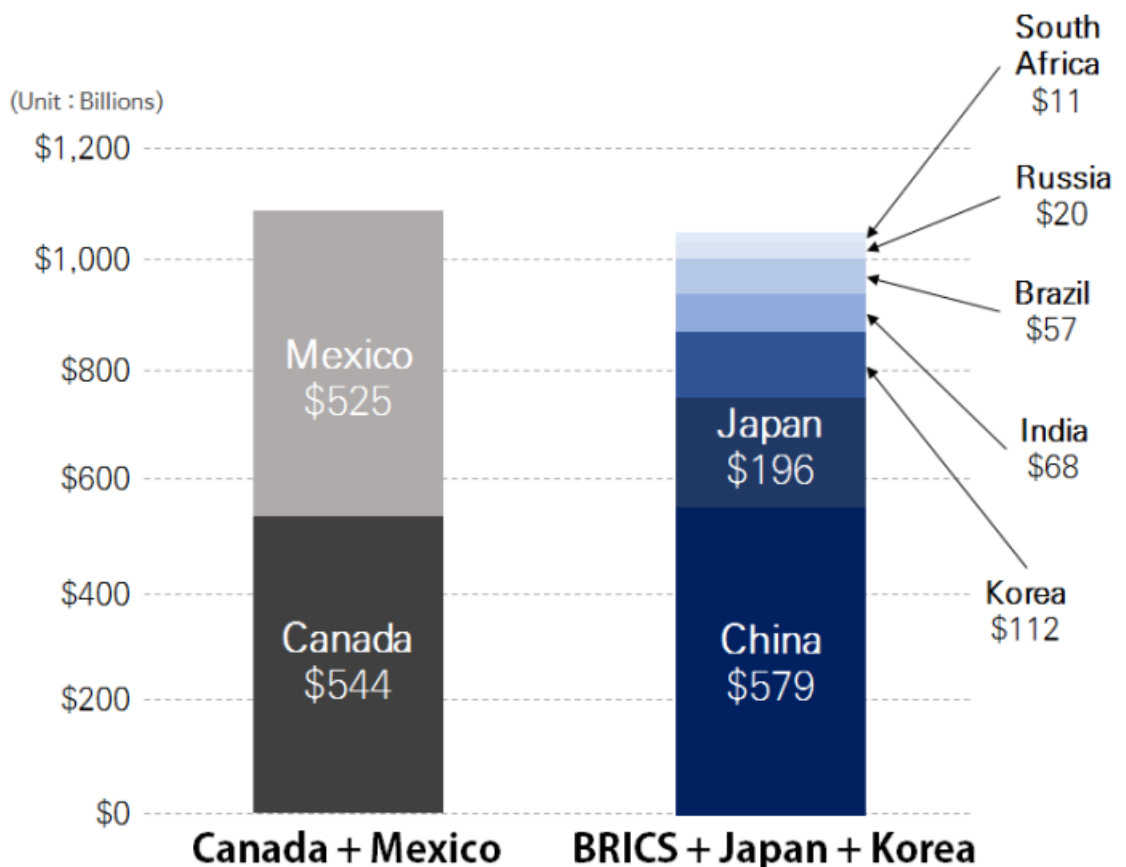
051-797-4778, ydkong6053@kmi.re.kr

이슈페이퍼

NAFTA 재협상이 공급사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북미 자유무역 협정(NAFTA)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시장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NAFTA는 세계에서 가장 큰 4억 5천만 명에 이르는 무역규모를 창출하고 있는 손꼽히는 시장이며 캐나다, 미국, 멕시코 3개국 간 무역량은 NAFTA 협약 이후 1993-2015년 동안 약 4배 증가하였음
 - 북미지역은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의 핵심지역으로 2016년 기준 약 1,810만 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
- NAFTA는 지난 23년 간 캐나다, 미국, 멕시코 3국간 국경운송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함
 - 1994년 처음 협약이 체결된 이후 캐나다, 미국, 멕시코 3개국 간 국경무역은 약 400% 이상 성장하였으며 트럭운송, 파이프라인운송, 항공운송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과 멕시코 간 거래되는 화물의 75% 이상이 트럭이나 철도를 통해 운송되고 있는 등 국경운송은 북미지역 무역의 주요 운송루트라 할 수 있음
 - 캐나다 수출량의 74%, 멕시코 수출량의 75%가 미국으로 운송되며, 미국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16%, 14%의 비율로 수출하고 있음

미국의 교역량 비교 (캐나다 + 멕시코 VS BRICS 5개국 + 일본 + 한국)



자료 : www.globaltrademag.com

- 미국의 원재료 수입은 자국 무역시장의 주요 원천이라 할 수 있음
 -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 등 인근 국가에 대한 원재료 수입의존도는 50%로 높은 수준이며 EU(37%), 중국(28%) 등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즉, 북미지역 무역의 핵심은 완제품이 아닌 완제품을 위한 원재료, 부품 등 중간재라 할 수 있으며 미국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원재료 수입의존도는 매우 높음
-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원재료 수입 의존도를 미루어 볼 때 NAFTA 재협상은 향후 공급사슬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NAFTA 재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미국 내 많은 기업들이 향후 공급사슬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북미지역 무역활동의 전반적인 행태 변화를 의미함
 - NAFTA의 변화는 캐나다, 멕시코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 외에 기존 북미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던 원재료 조달의 공급사슬 붕괴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손꼽히고 있음

NAFTA가 미국 무역시장에 미치는 영향

NAFTA'S MIXED TRACK RECORD

A cheat sheet summing up the results of North American trade since 1994



NAFTA created the world's largest free trade area of **450 million** people.



During 1993-2015, trade between the three members quadrupled

North American Trade in 2015



Canadian Exports
74% of all Canadian exports go to the U.S.



U.S. Exports
30% of all U.S. exports go to Canada and Mexi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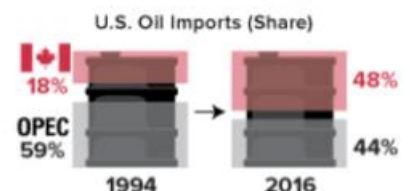


Mexican Exports
75% of all Mexican exports go to the U.S.



NAFTA lowered prices for consumers, especially for food, automobiles, clothing, and electron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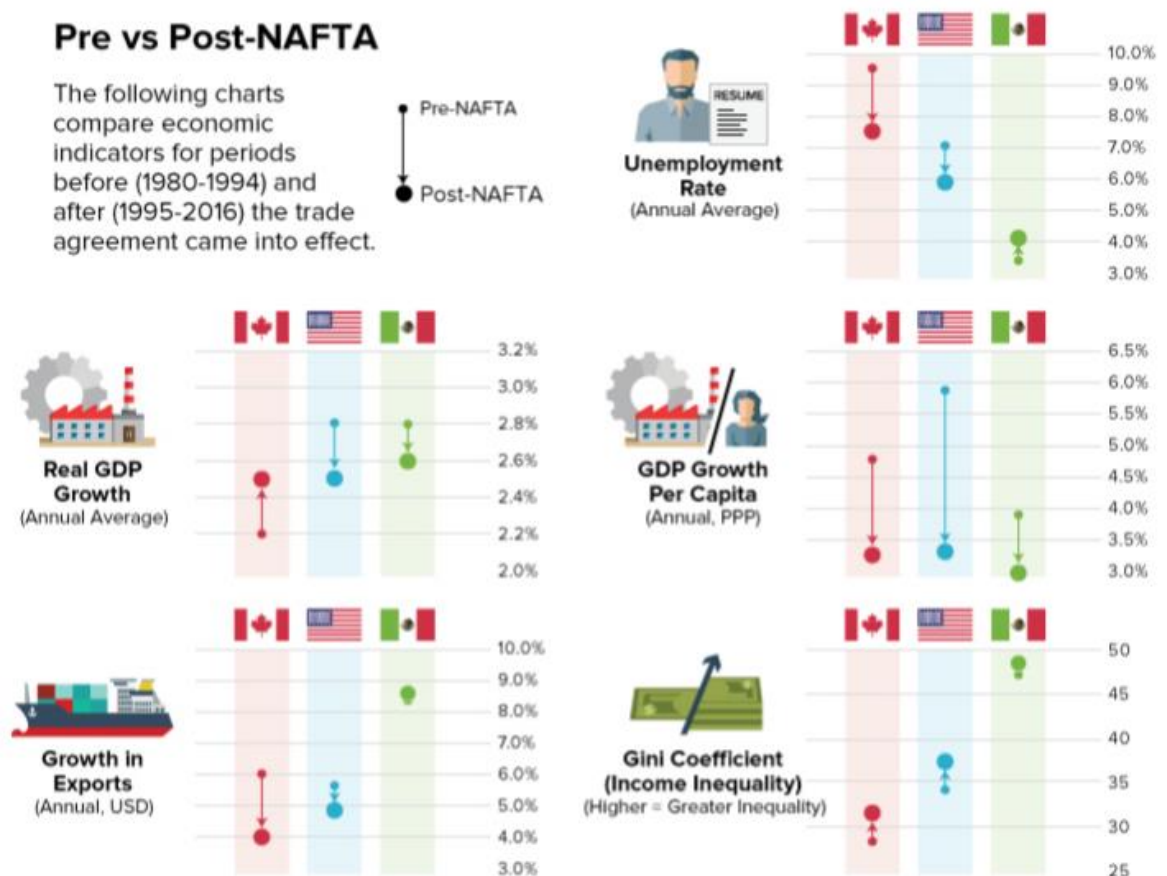
NAFTA reduced U.S. reliance on oil from less friendly regimes



자료 : www.visualcapitalist.com

- 북미시장 내 NAFTA 재협상으로 인한 공급사슬 변화의 핵심은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및 부품의 조달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일반적으로 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가 전체의 물류비뿐만 아니라 공급사슬의 리스크가 증가하며 생산력 감소 및 일자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
 - 반면에 원재료를 수입하여 자국의 노동력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할 경우 제품의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을 실현시킬 수 있어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중간재 수입을 주로 담당하는 주요 도시들은 공급사슬의 주요 거점으로 NAFTA 재협상에 특히 주목하고 있음
 - 미국이 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원재료, 부품 등을 수입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수입량은 산업의 구조 및 지리적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 텍사스, 미시간, 오하이오, 워싱턴 등 미국 내 핵심 주들은 매년 중간재 수입이 150억 달러를 넘는 수준으로 이는 미국 전체 중간재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미시간 주의 자동차 산업은 중간재 수입의 대부분을 캐나다와 멕시코의 공급업체에 의존해 왔으며, 자동차 시트, 타이어, 엔진부품 등 수 많은 부품들이 미시간 주 남동부에 위치한 생산공장에 유입되고 있음

NAFTA 협약 체결 이전과 이후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경제 지표 변화 비교



자료 : www.visualcapitalist.com

NAFTA 재협상이 가격 및 공급사슬에 미치는 영향

Price Risk 	Supply Risk 	Supplier Risk 
Exposure to fluctuating supply chain costs: • Raw materials prices • Currency fluctuations • Transport / logistics costs • Labour costs • Increasing number of components / materials sourced	Exposure to events which disrupt supply: • Political unrest / conflict • Economic turbulences • Natural disasters • Infrastructure failures • Supply shortages • Regulatory changes	Exposure to diverse & less visible counterparties: • Compliance / regulatory violations • Supplier default • Reputational risks • Sanctions

자료 : www.thomsonreuters.com

- NAFTA 재협상은 북미지역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항공우주 산업의 공급사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항공우주 산업 또한 자동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공급사슬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항공 산업단지가 밀집된 워싱턴이나 시애틀에서는 캐나다로부터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항공기 부품을 조달 받고 있으며, 애리조나에서는 항공우주 기지 건설을 위해 멕시코로부터 3억 달러의 부품을 수입하고 있음
 - 캐나다,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부품을 이용하여 항공기 및 완제품을 생산을 통해 2016년 기준 항공우주 산업의 수출액은 총 1,48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항공우주 산업의 성장으로 향후 수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NAFTA 재협상이 미국 무역시장을 성장 시킬지 혹은 축소시킬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나 완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로서 원재료 조달을 위한 공급사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 NAFTA 재협상 이후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재협상 이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국내 무역시장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음
 -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형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세계 무역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또한 NAFTA 재협상 이후 한-미 FTA에 대한 재평가도 논의 되고 있는 바 NAFTA 재협상을 주도면밀하게 관찰하여 우리나라 제조·물류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참고자료 : www.globaltrademag.com, 2017.9.22./ www.theinvestor.jil, 2017.9.23./

www.thomsonreuters.com, 2017.9.23./ www.supplichaindive.com, 2017.9.22.

김동환 연구원

051-797-4913, kdong@kmi.re.kr



Uber Freight, 운전자 중심의 화물운송 중개 플랫폼 소개

- 지난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롱비치에서는 복합운송(Intermodal)과 관련된 전문가 및 기업들이 참여하는 Intermodal Expo 2017이 개최되었음
 - 복합운송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강연과 함께 CIMC Intermodal Equipment, KWIK Equipment Sales, Kalmar 등의 복합운송 장비 개발기업들의 전시회가 진행됨
- 특히 9월 19일에는 'Uber Freight와의 대화(A Conversation with Uber Freight)'가 진행되어 최근 온디맨드 화물운송 중개사업을 시작한 Uber Freight(우버프레이트, 이하 UF)에 대해 소개함

Intermodal Expo 2017 중 'Uber Freight와의 대화' 현장



자료 : 강무홍, Intermodal Expo 2017 출장결과보고서, 2017.9.26.

- UF의 사업개발 책임자인 Bill Driegert는 지금까지 철도화물 운송 및 항공화물 운송 분야에서는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없었으나 트럭 운송 분야에서는 이를 포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함
 - UF는 트럭 운영과 관련되어 수익성이 보장되는 다양한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있지만, 지금은 필요한 순간 즉시 트럭을 연결해 주는 트럭 운송 중개 부문에 집중하고 있음
 - UF는 '기술주도형, 운영지향적인 회사(technology-driven, operations-driven company)'로서 기술이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을 이끌 수 있다고 확고히 믿고 있음
 - UF는 화물운송 부문의 다른 스타트업들과 마찬가지로, 기존 운영방식 및 관계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고 고객 및 운전자 모두에게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 UF의 목표는 '얼마나 많은 접점(Touch Point)을 제거할 수 있는가?'이며, 이를 통해 많은 수익 창출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UF는 계획, 배치, 예약, 브로커링 등의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복잡한 트럭 운송 절차를 풀고 UF앱을 통해 모든 거래를 디지털화함으로써 5분 이내에 트럭을 화주에게 연결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함



- 미국 트럭운송협회(American Trucking Associations)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트럭운송시장은 7,000억 달러 이상으로 집계되어 UF를 비롯한 다른 디지털 화물 중개인들에게 많은 수익 창출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Driegert는 “중개인들은 틈새를 쫓아다닌다(Brokers go after niches)”고 하면서 의료화물, 중량 화물, 냉장화물과 같은 틈새시장에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함
- 화물트럭 우버화(Uberization)의 핵심은 운전자 중심이며, UF는 운전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음
 - UF는 운송완료 후 한 달 이상 걸렸던 운송료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주내로 지급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함
 - 또한 종래 운송에서 문제(예, 무게 오류, 시간 미준수, 운송료 미지급 등)를 야기하였던 화주들의 정보를 분석하여 운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이 더 좋은 화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모회사인 Uber(우버)의 경우 운전자에 대한 성희롱과 다른 형태의 학대행위가 발생하곤 하였는데, UF는 이러한 모회사의 경험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보완 중이라고 함

■ 참고자료 : www.joc.com, 2017.9.21.

강무홍, Intermodal Expo 2017 출장결과보고서, 2017.9.26.

강무홍 전문연구원

051-797-4684, mkang@kmi.re.kr



미국과 멕시코, 합동 화물검사 파일럿 프로그램 확대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멕시코와의 합동 화물검사 파일럿 프로그램을 남부 캘리포니아까지 확대한다고 발표
 - 미국과 멕시코 간 합동 화물검사는 최초로 2016년 7월에 미 애리조나주 노갈레스(Nogales)에서 시작하였으며 현재 미 전역 5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음
 - 그러나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위치한 샌디에이고 남부 화물시설에서는 아직까지 별도의 합동 화물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 남부 캘리포니아에서의 합동 화물검사 파일럿 프로그램은 10월 중 시작될 예정으로 이를 위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과 멕시코의 연방 국세청(SAT)이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음
- 합동 화물검사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통관업무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사용자를 위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것임
 - 합동 화물검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화물운송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국가 보안 강화를 통한 미국과 멕시코 간 무역 촉진을 기대함
 - 프로그램 운영은 잠정적으로 평일 기준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주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정함
- 미 샌디에이고 관세국경보호청의 운영책임자인 피트 플로레스씨는 “합동 화물검사 프로그램이 합법적인 무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세계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보다 효율적인 통관 프로세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함

美 샌디에이고 남부 화물시설 통관 전경



자료 : americanshipper.com

■ 참고자료 : www.americanshipper.com, 2017.9.26.

김영훈 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카자흐스탄, 이란과 교통·물류 분야 협력 다각화

- 2017년 9월 이란과 카자흐스탄은 양국의 통상관계 발전을 위해 합작 선사를 설립했음
 - 2016년 4월 양국 대통령은 합작사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 모하마드 사이디 이란 선사 IRISL 회장은 이란과 카자흐스탄 철도청이 합작 선사를 설립했으며, 이는 중앙아시아와 이란 남부 항만을 잇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 합작사의 본사는 이란 항만 도시인 반다르안젤리에 설립할 예정이며, 카자흐스탄 항만 도시인 악타우에도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임
- 2017년 초에는 반다르아바스 항만에 공동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관련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와 같은 공동프로젝트는 양국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2016년 양국간 물동량은 2015년 대비 210만 톤으로 16% 증가했으며, 악타우 항만 물동량은 2015년 대비 32만 7천 톤 증가한 188만 톤을 기록했음
- 그 외에도 카자흐스탄 회사 “KTZ Express”(자회사 “카자흐스탄철도”)와 이란 회사 “Islamic Republic of Iran Shipping Lines”는 합작사를 설립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임
 - 이와 관련하여 양국은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 노선개발을 위한 위원회 설립에 합의했음
 - 특히 이 노선은 중앙아시아 및 중동 국가들과 러시아 및 중국 간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 참고자료 : infranews.ru 2017.9.25.

김엄지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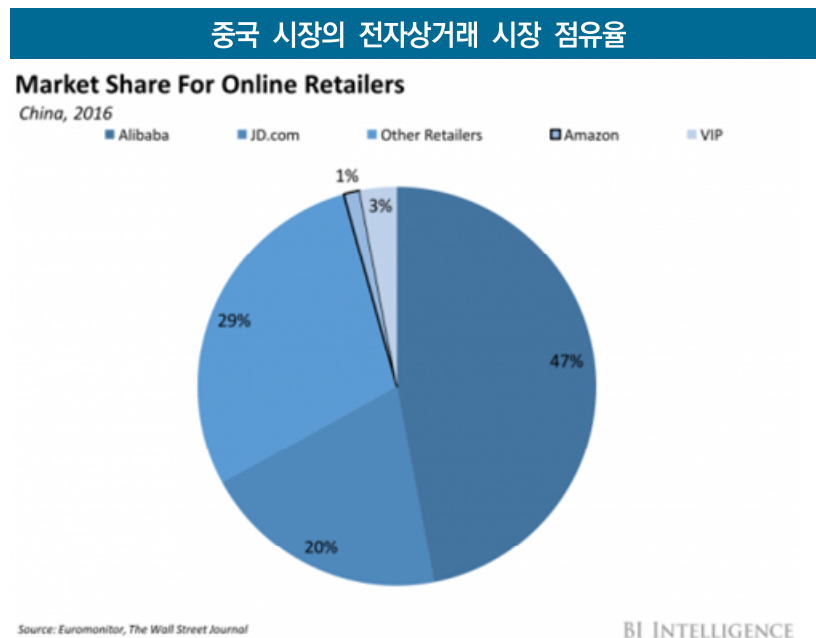
051-797-4776, umjikim@kmi.re.kr



해외현지리포트

중국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한 아마존의 노력

-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는 아마존
 - 아마존은 지난 10월 중국에서 프라임(Prime) 멤버십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나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은 전하고 있음
 - 미국 시애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은 지난 2016년 중국 온라인 리테일 시장에서 1.3%에 불과한 점유율을 기록(아래 그림 참조)하였으며, 이는 2011년 2%보다 감소한 시장 점유율임



자료 : Euromonitor, The Wall Street Journal

- 아마존의 '프라임' 구독권과 모바일 앱은 중국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전자상거래 기업들과도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어, 아마존은 중국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상황임
- 아마존이 중국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이유 분석
 - 첫째로, 중국에서의 아마존 '프라임' 구독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함. Euromonitor International의 분석가인 Shirley Lu는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아마존의) 프라임 구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신속/무료 배송 및 할인 서비스는 중국에서 두드러진 서비스로 통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중국 기업들이 이미 제공하고 있거나 아마존 프라임을 능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음. 그리고 중국 정부의 검열로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 서비스 역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향후 프라임 서비스의 가치는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또한, Fung Global Retail & Technology의 Deborah Weinswig 이사(managing director)에 의하면, 중국에서 과거 멤버십 관련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소비자들은 멤버십 서비스에 대해 조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멤버십 고객들에게 역점을 두고 있는 아마존의 '프라임' 서비스는 중국에서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중국 기업들은 멤버십 가입 없이도 무료 운송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임

- 둘째로, 아마존의 모바일 앱(app) 디자인은 중국 경쟁업체들의 앱과 비교할 때, 뒤쳐져 있는 상황임. 중국에서 2016년 모바일 폰을 이용한 구매는 전체 디지털 구매의 66%로 4,503억 달러의 구매액을 기록할 정도임. 이처럼 중국에서 모바일은 중요하고 앞으로도 모바일의 중요성은 증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아마존의 앱은 단조롭고 밋밋한 디자인으로 중국에서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반면, 경쟁업체들의 앱은 보다 화려하고 중국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Lu는 언급함

- 셋째로 아마존은 중국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음. 중국 내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와 JD.com은 중국 내 온라인 리테일 시장의 47%와 20%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아마존은 이에 비해 적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알리바바와 JD.com은 중국 시장에서 매우 탄탄한 기반을 구축한 상태이며, 다른 전자상거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얻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아마존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도 약화되어 소비자들을 얻는데 실패하고 있음

● 아마존이 중국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방안

- 아마존은 해외(서방국가) 제품 공급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중국에서의 사업전략을 전환할지도 모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알리바바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주요 약점 중 하나는 위조품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것이며, 아마존은 이러한 약점을 기회로 삼아서 해외 제품의 진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략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실제로 Robert W. Baird & Co.의 아마존 분석가 Colin Sebastian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아마존이 중국에서 경쟁하려는 시도로부터 벗어나 전세계 시장에 중점을 두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 같다"고 언급하였음
- 그러나 JD.com과 알리바바는 모조품이 배송되는 오명을 벗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고급 제품까지 취급하고 있어, 아마존이 가지고 있던 장점 중 일부마저도 손상될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음
- JD.com과 알리바바는 해외 브랜드 제품 전용 시장을 선보이고 있는 상황임
- 아마존이 해외 제품들을 취급하며 중국 시장에서 우위를 갖는 것이 더 이상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존이 중국에서 성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중국 소비자들을 어필할 수 있는 모바일 앱과 프라임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임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향후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

- BI Intelligence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업들의 전략을 기반으로 예측해 본 결과에 의하면, 글로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2021년까지 1조 달러 이상의 판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적으로 미국 대선 및 영국의 EU 탈퇴(Brexit)라는 두 가지 주요 사건은, 국가 간 제품의 흐름을 제한할 수도 있는 보호무역주의 형성으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음
- 서방 국가들의 자국주의(nationalism)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냉전 이후 무역자유화 및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힘입어 정치적 긴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 참고자료 : www.businessinsider.com 2017.8.30.